

비행 청소년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인식력*

이 강 선**

분당 토끼와 거북 크리닉

이 효 신***

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 요 약 》

본 연구는 비행 청소년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인식력에 관한 연구이다. 비행 청소년의 경우 최근 정서적 결함과 관련하여 적절히 중재되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인격장애로 발전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의 문제를 알고 중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서인식에 관한 탐색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경우 최근 20-30년을 전후하여 이들이 정서인지에 어려움을 가진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와 관련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인식력 특성을 알아 보는 것을 첫 번째 연구 목적으로 삼았고, 두 번째로는 두 집단 간 정서인식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소년원에 수감 중인 비행 청소년 30명과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진단받은 청소년 29명이다. 이들의 정서인식력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자기 보고식 측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컴퓨터 기반의 정서인식력검사(ERT-R)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비행 청소년의 정서인식력은 정상수준이었고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인식력은 경계선 수준이었다. 두 집단 간 정서인식력은 차이가 있어,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인식력이 비행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정서이해와 정서변별 그리고 맥락이해로 나뉘어진 정서인식력의 하위영역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영역은 맥락이해였다. 또한 부정적 정서(분노, 슬픔, 혐오, 놀람, 공포) 관련 맥락이해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이해력이 비행 청소년보다 현저하게 낮았으며, 공포관련 맥락이해에서는 두 집단 모두 지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주제어 : 비행, 자폐스펙트럼장애, 정서인식력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연구임.

** 제 1저자

*** 교신저자(hyoslee@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최근 정서인식 능력과 다양한 유형의 정신 병리적 증상을 나타내는 인간 행동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정서·행동 문제를 나타내는 청소년들의 행동도 정서인식 능력의 저하와 관계가 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Davis & Gibson, 2000; Gaebel & Wolwer, 2004; Joormann & Gotlib, 2007; Kee et al., 2003; Mueser et al., 1996; Surguladze et al., 2004). 자신의 정서를 알고 다루는 능력인 정서인식력은 인간의 행동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Meharabian(1971)은 개인 간 면대면 상호작용 시에 드러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 자극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분석에서 언어적 자극이 7%, 말투가 38%, 그리고 표정이 55%를 차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개인이 어떤 표정을 짓고, 상대방의 표정을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시사해준다. 또한 얼굴 표정은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는 타인의 얼굴 표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각각의 정서가 전달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조절한다(Blair, 1999; Sandberg, Bibby, & Ovegaard, 2013). 따라서 얼굴 표정은 사회적 상황을 전달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Trentacosta와 Fine(2010)은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은 정서를 조절하고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Mayer, Dipaolo, 그리고 Salovey(1990)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밖에도 얼굴 표정을 통한 정서인식력은 성공적인 대인관계와 심리사회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타인의 정서를 잘 해석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것이고 사회적 부적응 또는 정신 병리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Blair, 2005; Boden, Gala, & Berenbaum, 2013; Izard et al., 2001). 양재원(2011)의 연구에서도 얼굴 표정을 통한 정서인식력은 또래관계와 관련성을 나타내며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정서인식의 정확성은 개인 내적으로나 대인관계에서 모두 필수적인 기본적인 발달과제이며 타인의 표정을 통하여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은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은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다루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서인식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람의 정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얼굴표정을 통하여 연구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Keltner 등(1995)은 정서에 대한 얼굴 표정 연구가 정서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고, 얼굴표정이 내포하는 정서 상태는 문화적 보편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설명하였다.

정서인식력의 특성에 관한 보고는 특히 품행장애 혹은 비행 청소년 집단에서 많이 있어 왔다. Cadesky, Mota, 그리고 Schachar(2000)는 ADHD 아동과 품행장애 아동, 일반아동을 비교해 본 결과, ADHD와 품행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얼굴 표정을 해석할 때 정확성이 떨어짐을 발견하였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사진에 나타난 얼굴표정을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Carr와 Lutjemeier(2005)는 범법 행위로 인하여 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29명의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쁨, 슬픔, 두려움, 그리고 화남을 표현한 성인 및 아동의 얼굴 표정 사진과 만화에서 얼굴 표정 그림을 선별하여 정서인식 과제를 시행한 결과, 두려운 얼굴 표정을 인식하는 데 정확도가 떨어짐을 보고하였다. McCown, Johnson, 그리고 Austin(1986)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남, 역겨움, 두려움, 기쁨, 슬픔, 놀람의 6가지 정서를 표현한 얼굴 표정 자극을 사용하여 정서인식 능력을 탐색하였는데 그 결과, 비행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역겨움, 슬픔, 그리고 놀람을 표현한 얼굴 표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안제용(2010)의 연구에서는 정서경험과 인지왜곡,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재원(2011)의 연구에서도 얼굴 표정에서 타인의 정서를 잘 해석하지 못한다면 정신 병리와 관계가 있고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광금주 등(1991)와 Izard 등(2001)은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행동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은 모호한 사회적 상황을 더 공격적인 상황으로 해석하고 얼굴 표정 등과 같은 사회적 단서의 부호화 및 해석과 같은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인지적 편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는 정서적인 단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오해석하는 경우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대적인 귀인 편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공격적인 행동으로 해결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emerise, Walden, 그리고 Smith(1997)와 최홍태(2011)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정서를 조절하는 데 실패하게 됨으로써 파괴적 혹은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정서인식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사회성 발달 지체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인들은 타인의 얼굴 표정에서 정서를 인식하는 것에 있어 일반인들에 비해 오류를 더 많이 나타낸다(배민정, 이효신, 2013; Attwood, 2010; Celani et al., 1999). Braverman 등

(1990) 그리고 조경자, 김정기(2011)의 연구에서도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과 성인들이 얼굴 표정 지각 및 인식 능력에 결함을 보여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타인의 정서를 적절하게 모방하지 못하고 타인의 얼굴에 나타난 기본 정서를 변별하거나 분류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Hobson(1986)은 지적수준이 같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그림이나 사진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 표정과 비디오에 제시된 사람의 몸짓, 목소리, 상황을 서로 알맞게 연결시킨 결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집단은 낮은 수행을 나타냄을 밝혔다. McDonald 등(1989)의 연구에서도 생활 연령과 동작성 지능이 같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각 10명씩을 대상으로 얼굴과 음성 양식을 통한 모방능력을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 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 얼굴과 음성 양식을 통하여 정서적인 표현을 모방하는데 있어서 결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은 얼굴 표현을 모방할 때 부정적인 정서를 비교적 덜 나타내었으며, 음성표현을 모방할 때는 행복한 표현이나 중립적인 표현을 덜 나타내는 반면 슬픈 표현을 더 잘 나타낸다는 보고도 있다(이현영, 2001). 그러나 Volkmar 등(1998)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에서 장애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익숙하지 않은 표정이나 복잡한 감정을 인지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Baron-Cohen 등(2001)의 연구에서도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들은 얼굴에 나타난 기쁨이나 슬픔, 화남, 노람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서 상태를 지각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정훈영과 서경희(2010)의 연구에서도 생활 연령 8-14세 사이의 고기능 자폐아 20명과 지능지수가 비슷한 일반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정서인식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고기능 자폐아와 일반아동 모두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 정서를 인식하는 데 결함이 없으나 청각적인 단서를 통해 정서를 인식하는 데에는 결손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이 얼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일반 아동과 다른 인지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조경자와 김정기, 2011). 얼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눈, 코, 입과 같은 부분적인 특징 즉 조각 정보와 더불어 전체적인 형태 정보에 대한 처리도 함께 요구되나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은 전체적인 형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상지능의 자폐스펙트럼장애 성인과 일반 성인에게 얼굴 사진을 보는 동안 눈의 움직임 패턴을 측정한 Pelphrey 등(2002)의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의 경우 눈 코 입과 같은 주요 부분을 보는 횟수가 많은 반면에 자폐스펙트럼장애 성인은 귀, 턱, 머리카락 등을 자주 쳐다보는 경향이 강함을 밝혔다. 이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성인들이 얼굴을 인식할 때 사용하는 정보가 다르다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는 내용이며, 얼굴 재인과정에서도 일반 성인과 다른 정보처리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처럼 정서인식력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두 집단, 즉 품행장애 집단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집단은 정서인식력의 부족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이 드러내는 문제는 질적으로 매우 달라서 보다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 정서인식력의 차이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 위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비행 청소년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인식력은 어떠한가?
- 둘째, 비행 청소년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인식력은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1) 비행 청소년

본 연구에서 비행 청소년이라 함은 소년원에 수감 중인 8호, 9호, 10호¹⁾의 처분을 받은 17세에서 20세 사이의 남자 청소년을 말한다.

2) 정서인식력

정서인식력이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다루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 정서변별, 맥락이해 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ERT-R(Emotional Recognition Test-Revised)에 의한 측정값을 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정서인식력이 지능지수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Bons et al., 2013)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을 17-20세, 지능지수는 80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1) 비행 청소년의 처우과정을 말하며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9호는 단기 소년원, 10호는 장기 소년원을 의미한다.

1) 비행 청소년

비행 청소년 집단은 법무부 소년과의 협조를 통하여 G고등학교(소년원) 학생 30명을 선정하였다. 적용된 선정기준은 법원의 수감명령으로 G지역 소재의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 수감되어 8호, 9호, 10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남자청소년일 것, 생활연령 17-20세일 것, 그리고 수감기관 내 검사 상 지능이 80 이상일 것 등 3가지였다.

2)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 집단은 전국 6개 도시(B광역시, D광역시, DJ광역시, GW광역시, G시, S시)의 사설 치료실과 복지관, G지역의 일반 학교의 특수반과 특수학교의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 29명이다. 적용된 선정기준은 신경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확인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남자청소년일 것, 생활연령이 17-20세일 것, 그리고 표준화 지능검사도구에 의한 지능지수가 80 이상일 것 등 3가지였다.

2. 연구 도구(정서인식력 검사)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수정(2012)이 개발한 정서인식력검사(Emotional Recognition Test-Revised)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피검자의 정서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자기보고식 언어성 검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비언어적 그림자료를 이용하는 정답형 문제해결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Ekman(1994)의 행복, 혐오, 놀람, 슬픔, 분노, 두려움의 6가지 기본 정서에 근거하여 54개의 전산화된 사진 및 그림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포함된 정서적인 단서를 제대로 파악한 경우 정답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되어 정답의 최대 점수는 54점이다.

이 검사의 구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검사는 정서인식(emotional recognition, ER), 정서변별(emotional differentiation, ED), 맥락이해(contextual understanding, CU) 등 3개의 하위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결과는 정답수에 대한 연령별 표준점수(T점수)로 제시된다. 정서인식의 소검사 항목은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모두 정답인 경우 총 18점이다. 슬픔, 행복, 놀람, 분노, 혐오감, 공포의 총 6가지 주요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무표정한 얼굴로부터 감정이 있는 얼굴들을 구분해내는 형식으로 긍정적인 감정 9점, 부정적인 감정 9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변별은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모두 정답인 경우 총 12점이다. 슬픔, 행복, 놀람,

분노, 혐오감, 공포의 6가지 주요 감정 가운데 한 가지 감정을 주제로 구성된 여러 개의 사진들 중 다른 한 개의 감정 사진을 변별해 내도록 구성되어 있다. 맥락이해는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모두 정답인 경우 총 24점이다. 슬픔, 행복, 놀람, 분노, 혐오감, 공포의 6가지의 주요 감정은 한 개 당 4문항씩 제시된다. 맥락이해는 소검사 가운데 최고 난이도의 문항으로 그림 상황의 정서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모니터에 제시되는 그림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가장 적합한 얼굴 사진을 찾는 방식이다.

3. 연구 절차

1) 장소

본 연구 수행에 사용된 장소는 선정된 비행 청소년이 속해있는 G고등학교(소년원)와 보호관찰소의 개별 상담실, 그리고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이 속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그리고 사설 치료실의 교실 혹은 개별 치료실로 개인 면담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이었다.

2) 검사 실시

정서인식력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노트북에 내장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피험자들에게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여 검사를 수행하는 법을 교육하고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의 모든 단계는 연구자와 1:1 개인 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검사 종료 후에는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4.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SAS 9.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비행 청소년 집단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 집단의 정서인식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III. 연구 결과

비행 청소년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인식력을 알아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비행 청소년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인식력

	구분	N	M	SD	t	p-값
정서이해	비행	30	50.8	10.0	0.38	.707
	자폐	29	49.5	15.7		
정서변별	비행	30	47.7	15.4	1.77	.083
	자폐	29	38.4	23.4		
맥락이해	비행	30	50.2	10.1	3.01	.004**
	자폐	29	39.8	15.6		
정서인식력 전체	비행	30	50.0	11.3	2.45	.018*
	자폐	29	40.1	18.5		

*p<.05 **p<.01

1. 비행 청소년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인식력

1) 비행 청소년의 정서인식력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행 청소년 집단의 전체 정서인식력은 50.0으로 기준집단의 평균과 동일한 매우 정상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3개 영역 평균은 50.8, 47.7, 50.2로 모두 기준집단의 평균에 매우 가까운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인식력 검사는 변환점수인 T점수를 사용하므로 50을 전후로 나타난 비행 청소년 집단의 점수는 이들의 정서인식력이 기준집단의 평균에 매우 근접하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의 정서인식력은 매우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인식력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 집단의 전체 정서인식력은 40.1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들의 정서인식력이 규준집단의 평균으로부터 약 1표준편차정도 지체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39점 이하를 평균이하의 정서인식력으로 해석하는 지침(이수정, 2012)에 의하면 이들의 정서인식력은 정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하위집단의 정서인식력에 가까운 수준으로 볼 수 있다. 3개 영역 평균은 49.5, 38.4, 39.8로 나타났는데, 49.5인 정서이해 영역은 규준집단의 평균점인 50에 가까운 점수이므로 이들의 정서이해력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서이해력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영역, 즉 정서변별력과 맥락이해력은 규준집단의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이 정서변별과 맥락이해에서 어려움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비행 청소년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인식력 차이

1) 전반적인 정서인식력 차이

비행 청소년 집단의 정서인식력 평균은 50.0 그리고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 집단의 정서인식력 평균은 40.1로, 비행 청소년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전반적인 정서인식력은 .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5$, $p<.05$). 이것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인식력이 비행 청소년의 정서인식력보다 현저하게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하위 영역별 차이

정서이해, 정서변별, 맥락이해의 3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정서인식력검사의 결과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이해 영역은 비행 청소년 집단의 평균이 50.8, 그리고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 집단의 평균이 49.5로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평균이 비행 청소년의 평균보다 다소 낮았으나 매우 미미한 차이였고 두 집단 모두 규준집단의 평균점수인 50에 매우 근사한 값이어서 이들 두 집단의 정서이해력은 매우 정상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정서변별은 비행 청소년 집단의 평균이 47.7, 그리고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 집단의 평균이 38.4로 나타나,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변별력이 비행 청소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비행 청소년 집단의 정서변별력은 규준집단의 평균에 가까운 점수였으나 자폐스펙트

립장애 청소년 집단의 정서변별력은 규준집단의 평균에서 1표준편차 이상 떨어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맥락이해는 비행 청소년 집단의 평균이 50.2, 그리고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 집단의 평균이 39.8로, 두 집단 간 맥락이해력은 .01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01, p<.01$). 이것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맥락이해력이 비행 청소년보다 현저하게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정서별 맥락이해 차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인식력 검사는 정서이해와 정서변별 그리고 맥락이해의 3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맥락이해 문항은 6가지 기본 정서에 각각 4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총 24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비행 청소년 집단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맥락이해 영역을 6가지 기본 정서별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비행 청소년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별 맥락이해 차이

표정	구분	N	M	SD	t	p-값
행복	비행	30	37.8	22.2	1.73	.089
	자폐	29	27.3	24.0		
분노	비행	30	49.1	13.4	3.32	.001**
	자폐	29	34.4	19.7		
슬픔	비행	30	36.0	17.9	2.52	.014*
	자폐	29	24.0	18.2		
혐오	비행	30	52.6	14.5	3.28	.001**
	자폐	29	37.7	19.5		
놀람	비행	30	42.1	16.1	3.03	.003**
	자폐	29	28.1	18.7		
공포	비행	30	2.41	1.0	2.18	.033*
	자폐	29	1.79	1.1		

* $p<.05$ ** $p<.01$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은 행복과 관련된 맥락이해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행복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기본 정서와 관련된 맥락이해에 있어서는 .05 혹은 .01 유의수준에서 모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것은 5가지 기본 정서와 관련된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6가지 기본 정서 중 행복을 제외한 모든 기본 정서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보다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된 맥락이해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특이할만한 사항은 공포와 관련된 맥락이해 영역이다. 비행 청소년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 집단은 모두 공포관련 4문항에서 지극히 낮은 평균점수(비행 2.41, 자폐 1.79)를 나타냈는데, 이는 두 집단의 청소년들이 공포라는 기본적인 정서를 다루는 데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의 정서인식력이 정상수준으로 나타났고, 3가지 하위 영역, 즉 정서이해와 정서변별 그리고 맥락이해에서도 정상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 청소년이 정서적 내용에 대한 변별력이 낮고 맥락이해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한 이수정, 고선영, 이춘근(2004)의 연구 결과와 대치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보다 대상 집단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두 연구 모두 비행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범죄의 종류, 정도, 그리고 품행장애 진단여부 등을 명확히 비교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차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어떤 것이라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없다.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검사도구이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자기보고식 척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컴퓨터 기반의 비언어성 문제해결 형식으로 정서인식력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검사도구의 상이함에서 오는 차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인식력은 정상수준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나 하위집단과의 경계선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인식력은 정서이해에서 정상수준을 나타냈으나 정서변별과 맥락이해에서는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집단의 청소년들이 정서인식과 관련된 상당한 정도의 어려움을 보인다고 공통적으로 보고한 많은 연구들(조경자, 김정기, 2011; Braverman et al., 1989; Celani, Battacchi, & Arcidiacono, 199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비행 청소년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인식력을 비교한 결과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행 청소년의 정서인식력이 정상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는 달리 모든 영역에서 정상을 보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하위 영역별로 특히 맥락이해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드러난 것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이 상황과 관련된 정서이해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더욱 흥미로운 결과는 비행 청소년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별 맥락이해 결과이다. 비행 청소년의 경우, 6가지 기본 정서 중 슬픔과 행복 그리고 공포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은 6가지 기본 정서 모두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고, 이들 두 집단은 행복을 제외한 5가지 기본 정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포와 관련된 평균 점수는 두 집단 모두 지극히 낮은 수준을 보여(이 점수는 T점수이므로 이들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들이 공포관련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무감각하고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를 다루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특별히 부정적 정서 자극에 대한 이해 능력이 낮고 이것을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다수의 연구 결과(이수정, 고선영, 이춘근, 2004; Blair et al., 1997; Frick et al., 2003)를 지지하는 것이다.

비행 청소년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인식력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고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 청소년의 정서인식력은 정상 수준이다. 둘째,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 인식력은 정상과 하위그룹 간 경계선 수준이다. 셋째, 비행 청소년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인식력은 차이가 있으며,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인식력이 비행 청소년보다 낮다. 넷째,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인식력은 맥락이해 영역에서 비행 청소년과 차이를 보인다. 다섯째,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은 6가지 기본 정서별 맥락이해에서 부정적 정서(분노, 슬픔, 혐오, 놀람, 공포)관련 이해에 있어 비행 청소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섯째, 공포관련 맥락이해는 두 집단 모두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비행 청소년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정서인식력 특성을 알아본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이 청소년들의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이끌어 가는 데에 도움이 될 다양한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들에 대한 교육과 중재의 효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금주, 김하연, 윤 진 (1991). 청소년의 범죄와 비행.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145-156.
- 배민정, 이효신 (2013). 자폐범주성장애 유아의 의사표현행동 탐색.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2), 143-166.
- 안재용 (2010). 청소년의 인지왜곡이 정서인식의 명확도 및 정서강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양재원 (2011). 사회불안 증상과 얼굴 표정의 정서인식 편향.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수정 (2012). **정서인식력검사(Emotional Recognition Test-Revised) 전문가 지침서**. 서울: 맥스메디카.
- 이수정, 고선영, 이춘근 (2004). 고위험 비행 청소년들의 역기능적 정서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13.
- 이현영 (2001). 자폐성 장애 아동의 정서 변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정훈영, 서경희 (2010) 감각 자극 양식에 따른 고기능 자폐아의 정서인식의 특성. **정서·행동 장애 연구**, 26(2), 77-93.
- 조경자, 김정기 (2011). 자폐성향과 공감-체계화 능력 간의 관계. **감성과학**, 14(2), 245-256.
- 최홍태 (2011). 성범죄자의 정서인식력, 인지능력, 그리고 재범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 Attwood, T. (2010). **아스퍼거증후군**(이효신, 방명애, 박현옥, 김은경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7에 출판).
- Baron-Cohen, S., Wheelwright, S., Spong, A., Scahill, V., & Lawson, J. (2001). Are intuitive physics and intuitive psychology independent? A test with children with Asperger syndrome.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Learning Disorders*, 5, 47-78.
- Blair, R. J. R. (1999). Responsiveness to distress cues in the child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1), 135-145.
- Blair, R. J. R. (2005) Responding to the emotion of others: Dissociating forms of empathy through the study of typical and psychiatric population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4(4), 698-718.
- Blair, R. J. R., Jones, L., Clark, F., & Smith, M. (1997). The Psychopathic individual: a lack of responsiveness to distress cues? *Journal of Psychophysiology*, 34(2), 192-198.
- Boden, M. T., Gala, S., & Berenbaum, H. (2013). Emotional awareness, gender, and peculiar body-related beliefs. *Cognition & emotion*, 27(5), 941-951.
- Bons, D., van den Broek, E., Scheepers, F., Herpers, P., Rommelse, N., & Buitelaar, J. K. (2013). Moter, Emotional and Cognitive Empath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utism and Conduct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41(3), 425-443.

- Braverman, M., Fein, D., Lucci, D., & Waterhouse, L. (1990). Affect comprehension in children with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PsycSCA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301-316.
- Cadesky, E. B., Mota, V. L., & Schachar, R. J. (2000). How do children with ADHD and/or conduct problems process nonverbal information about aff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9*(9), 1160- 1167.
- Carr, M. B., & Lutjemeier, J. A. (2005). The relation of facial affect recognition and empathy to delinquency in youth offenders. *Adolescence, 40*(159), 601 -619.
- Celani, G., Battacchi, M. W., & Arcidiacono, L. (1999). The understanding of the emotional meaning of facial expressions in people with autism.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9*(1), 57-66.
- Davis, P. J., & Gibson, M. G. (2000). Recognition of posed genuine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in paranoid and nonparanoid schizophren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3), 445-450.
- Ekman, P. (1994). *All emotions are basic*. In P. Ekman & R. J. Davison(ED). *Nature of Emo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 Frick, P. J., Cornell, A. H., Barry, C. T., Bodin, S. D., & Dane, J. E. (2003). Callous -unemotional traits and conduct problems in the prediction of conduct problem severity. aggression, and self-report of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4), 457-470.
- Gaebel, W., & Wölwer, W. (2004). Facial expressivity in the course of schizophrenia and depression.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Clinical Neuro science, 254*(5), 46-52.
- Hobson, R. P. (1986). The autistic child' s appraisal of expressions of emo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7*, 321-342.
- Izard, C. E., Fine, S., Schultz, D., Mostow, A., Ackerman, B., & Youngstrom, E. (2001). Emotion knowledge as a predictor of social behavior & academic competence in children at risk. *Journal of Psychological Science, 12*(1), 18-23.
- Joormann, J., & Gotlib, I. H. (2007). Selective attention to emotional face following recovery from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6*(1), 80-85.
- Kee, K. S., Green, M. F., Mintz, J., & Brekke, J. S. (2003) Is emotional processing a predictor of functional outcome in schizophrenia. *Schizophrenia Bulletin, 29*(3), 487-497.
- Keltner, D., Moffit, T. E., & Stouthamer-Loeber, M. (1995).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and psychopathology in adolescent boy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4), 644-652.
- Lemerise, E. A., Walden, T., & Smith, M.(1997). Contributions of emotion to preschool children's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Paper presented in symposium entitled "The role of emotions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Chair: J. Hubbard) at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Washington, D.C.

- McDonald, M. A., Mundy, P., Kasari, C., & Sigman, M. (1989). Psychometric Scatter in Retarded, Autistic Preschoolers as Measured by the Cattell.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Allied Disciplines*, 30(4), 599-604.
- Mayer, J. D., Dipaolo, M. T., & Salovey, P. (1990). Perceiving affective content in ambiguous visual stimuli: A compon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3-4), 772-781.
- McCown, W., Johnson, J., & Austin, S. (1986). Inability of delinquents to recognize facial affect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 489-496.
- Meharabian, A. (1971) *Nonverbal communication*. Chicago: Aldine-Atherton.
- Mueser, K. T., Doonan, R. (1996). Emotional recognition & social competence in chronic schizophren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2), 271-275.
- Pelphrey, K. A., Sasson, N. J., Reznick, J. S., Paul, G., Goldman, B. D., & Joseph, P. (2002). Visual Scanning of Face in Autism.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2(4), 249-261.
- Sandberg, K., Bibby, B. M., & Ovegaard, M. (2013). Measuring and testing awareness of emotional face expression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22(3), 806-809.
- Surguladze, S. A., Young, A. W., Senior, C., Breblon, G., Traris, M. J., Phillips, M. L. (2004). Recognition accuracy & response bias to happy & sad facial expressions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Neuropsychology*, 18(2), 212-218.
- Trentacosta, C. J., Fine, S. E. (2010). Emotion Knowledge,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 in childhood a Adolescence: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Social Development*, 19(1), 1-29.
- Volkmar, F. R., Klin, A., & Pauls, D. (1998). Neurological and genetic aspects of Asperger syndrome.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8(5), 457-463.

A Study on Emotional Recognition of Delinquency and Autism Spectrum Disorder Adolescents

Lee Kang Sun

Rabbit & Turtle Clinic

Lee Hyo Shin

Dept.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emotional recognition of delinquency and autism spectrum disorder(ASD) adolescent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explore the emotional recognition features of the delinquency and ASD adolescents. And another one was to verify the differences between delinquency group and ASD group.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30 male adolescents in juvenile prison and 29 male adolescents under autism spectrum disorders diagnosed by professional neuropsychiatric physicians. Two groups, 17 to 21 years old, had IQ higher than 80. This study used ERT-R(Emotional Recognition Test-Revised) to measure emotional recognition and performed independent sample t-verification with a statistic program SAS 9.1.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emotional recognition of juvenile delinquency group was normal, while that of ASD group was at the borderline. Second, juveniles delinquency group had a higher emotional recognition than ASD group. Especially, there was dominant differences in the contextual understanding. Also contextual understanding related negative emotions was different.

Key Words : Delinquency, Autism Spectrum Disorder, Emotional Recognition

논문 접수: 2015. 04. 09 심사 시작: 2015. 05. 15 게재 확정: 2015. 06. 04